

제1회 「아부다비」 국제 防産 전시회 성황...

- 大宇造船, 국내 유일 出展 - 프리깃艦 관측에 注力



90년대말까지 6백억불의 무기거래가 예상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市場中 하나인 中東의 小王國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국제 防産 전시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0 개국의 국방장관이 현장을 찾아 防産 수출과 관련한 열기가 한껏 고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防産 市場이 한파(寒波)에 몸살을 앓고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과 함께 황금시장으로 부상(浮上)되고 있는 中東의 小王國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사상 최대의 무기 전시회가 열렸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렸던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 34개국 3백50여 업체가 참가하여 실물 전시, 화

력시범, 기동시범, 함정공개와 함께 미사일의 발사시범까지 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1회 아부다비 국제 방산 전시회(IDEX '93)에 국내에서는 대우조선(대표: 윤원석)이 유일하게 참가하여, 한국의 우수한 조함(造艦) 능력을 과시, 호평(好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l-Darmaki UAE 통합군 구매국장이 대우 전시장을 찾아 프리깃사업을 문의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金 惠 中 부장이 쿠웨이트 해군 사령관에게 조함사업 등 관심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작년 5월 UAE 해군 프리깃 (Frigate) 사업에 세계 유수(有數)의 5개 업체와 더불어 참여를 요청받아 現地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이에 따른 실제 모형을 제작, 전시하여 본격적인 수주전(受注戰)에 돌입하였다.

현재 UAE의 프리깃사업에는 8개국 17개 업체가 경합중이며, 이 가운데 대우조선을 포함한

4개국 6개사가 有力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은 지난해 4월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세계 28개국 4백8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제3회 아시아 방산전시회(DSA '92)에도 대우중공업과 공동참가하여, 한국의 뛰어난 防産 기술력의 국제적 홍보와 함께 好評을 받은바 있다. (泰)

P-3C 対潜초계기 사업 離陸 “발진”

- 美 록히드社, 생산조립라인 본격 가동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와 함께 우리 방위력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저(海底) 위협에 대비할 한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사업이 본격 발진되고 있다.

최근 美 록히드 항공 시스템즈사(LASC)는 조지아주 조립라인에서의 첫 P-3 해상 초계기 생산을 위한 조립라인의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은 1990년 12월에 8대의 해상 초계기(P-3C III Orion 개량형 모델) 구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될 예정이다.

P-3C 오리온 구매와 관련한 오프셋(Offset)의 일환으로 대우중공업이 P-3C 날개부품(Outer Wing) 8대분을 제작, 납품하게 되며, 이밖에 최근 10대분의 제작물량에 가격합의를 보는등 추가물량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10개국에서 6백41대가 해상 및 연안초계작전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안 감시, 처 밀수작전, 처 지상전, 전투전단 지원, 처 잠수함전, 목표물 확인 및 전투 피해사정과 같은 다양한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

P-3기내의 다양한 센서와 통신시스템은 해군의 최첨단 지상발전기지(Land-based platforms)의 하나가 되고 있다. (泰)



산·학·연·관各界 인사들의 衆智를 모아 안보정책 수립과 기술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1년 출범한 한국방위산업학회의 1993년도 정기총회가 2월 12일 서울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훌륭한 防産기업(3개사)와 防産人(3명) 大賞에 대한 첫 시상식이 있었다.

(본문 계속)

훌륭한 防産기업 및 防産人 大賞 첫 施賞

— 防産학회 1993년 정기총회에서 —

특히 방산기업 대상 선정은 중소기업중 해당분야 모범업체를 기준으로 선별하였으며, 방산인 대상자(3명)에게는 1백만원의 격려금이 각각 지급되었다.

• 훌륭한 防産기업 大賞

- * 경영관리 — 오리엔탈공업(대표: 金文雄)
근로조건 개선, 기술개발, 생산설비 투자
- * 국제협력 — 협진정밀공업(회장: 蔡虎錫)
선진기술습득, 해외시장 개척 등

- * 연구개발 — 한국화이바(대표: 趙文秀)
항공기용 복합 신소재 독자개발 등

• 훌륭한 防産人 大賞

- * 朴律錫 삼양화학 상무이사
방산 창업, 화학제품 양산체제 구축
- * 金貴柱 아시아자동차 선임연구원
차량전자과방해규제 연구개발 등
- * 金炳和 두원중공업 연구부장
화포 국산화, 사동장비 개발 등

훌륭한 防産기업大賞 수상

앞줄 왼쪽부터 한국화이바 (대표: 趙文秀)
협진정밀 (회장: 蔡虎錫)
오리엔탈공업(대표: 金文雄)



훌륭한 防産人大賞 수상자들(뒷줄은 회장단)

앞줄 왼쪽부터 朴律錫 삼양화학 상무이사
金貴柱 아시아자동차 선임연구원
金炳和 두원중공업 연구부장



제30대 국방부장관에 權寧海 前 차관 취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내각인선에서 權寧海 前 국방부차관이 신임 국방부장관(제30대)에 선임되었다.

權寧海 국방부장관은 예리한 통찰력에 사리가 분명하며, 현역시절에는 의리와 신뢰를 통한 부대지휘로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탁월한 군사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단장, 軍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올림픽 지원사령관을 끝으로 1988년 6월에 예편하였으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990년 국방부차관에 발탁되었다.

특히 주한미군 및 美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오랜 유대관계로 한·미 군사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처 국회 관련업무, 전력증강 업무등 국방부의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업무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조정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前例없이 국방부차관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데 대해 국방부 내부에서는 대환영을 표하며, 국방부 인사관행에 훌륭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프로필 權寧海 國防部長官

출생 : 1937년 경상북도 경주(월성)

가족 : 金孝淳 여사와 3女

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15)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약력 : 사단장, 軍사령부 참모장
올림픽 지원사령관

국방부 기획관리실장(88. 7~90. 12)

국방부차관(90. 12~93. 2. 25)

서훈 :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통일장 등

本誌 창간 14돌 기념 인터뷰 (93/1월호) 소개

本誌가 창간 14돌 기획으로 93/1월호에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權寧海 신임 국방부장관(당시 차관)과의 특별인터뷰를 꾸민바 있습니다. 이에 애독자 여러분의 一讀을 위해 발췌,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한 나라가 自主國防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경제력과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과 軍이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는 일치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產 ·學·研과의 共助 및 연계는 국방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앞 으로는 국방부에서 매년 2회정도 업체와 한 자리에 모여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代案을 마련하고, 특히 中·長期 계획에 물량의 현격한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平時물량은 적지만 戰時물량을 대비해서 유지시켜야 할 적정 생산시설을 판단하여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연 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을 조금 적게 들이는 한 이 있더라도 人力관리를 잘하면 자금투입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맡겨 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애국심과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